

丁茶山先生과 그 生涯의 回顧

安在鴻

高宗帝八年辛未 四月二十二日 景福宮延生殿에서는 十九歳の 少年君主이신 高宗을 피시고서의 中庸進講이 끝났었다.

高宗 『美夷(米國)가 우리나라를 侵犯하는 것은 極히 痛惋하도다』

右議政洪淳穆 『이 오랑캐는 본대 慄悍한 故로 그數는 그리케 만지 않다는데 形勢가 猖獗하다 하오니 더욱 痛憤합니다』

高宗 『그 오랑캐가 꼭 和親하자는 것은 웬일인고? 그러 치만 以若數千年 禮儀之邦이 어찌 犬羊으로 더부러 和親할가? 비록 몇해 相持하더라도 반듯이 痛絶하고마려야지. 만일 和親말을 내는者가 잇으면 맛당히 賣國律을 써야 할 것이야.』

洪 『我東方이 禮儀之邦인 것은 天下의 所共知라. 그런데 지금 一種陰邪之氣가 四方에 流毒하되 오죽 이 靑邱一片이 홀로 깨끗을 보존한 것은 實로 禮儀로 서로 직힌 까닭이외다.』

辛未四月中旬에는 所謂 洋擾란 者— 米國의 東洋艦隊가 丙寅年 大同江에서 깨진서어맨號의 消息도알을兼 로쳐提督의 거늘인 米國亞細亞艦隊가 江華島에 와서 朝鮮中軍 魚在淵과 廣城津에서 激戰하고 追後로는 성이 가시어 슬금슬금 떠나버리든 때의 일이다. 延生殿에 모인 임검과 大臣은 美夷의 드센 것을 근심하고 그 和親 = 修好通商하자는 까닭을 알 수 없어 궁금해 하고 結局은 朝鮮은 禮儀之邦임으로 오랑캐와 和親할 수 없을 뿐더러 一種陰邪之氣는 太陽과 같은 朝鮮文明에 빛이면 곧 녹아 슬어 저버리리라고 믿으려한 것이다. 朝鮮의 文明을 것처럼 든든하게 自信하엿던 것은 지금에 듣기에도 마음에 구수하다. 그러나 그 文明은 程朱之道를 말함이었었다. 程朱의 道란 것은 대체 形式을 좋아하고 邊幅을 꾸미고 空理에 달어나고 論議하기를 즐기며 매우 排他的이어서 宋에 있어서는 慶曆 元祐의 黨議란 者 그 行進의 前奏曲이 었었고 遼金의 鐵騎의 앞에 넘우도 無氣力한 亡國的 觀念傾向이 었었다고 極言하야 알맞을만한 者이다. 洪右相뿐아니니 領議政金炳學은 『한번 相通하면 邪學이 과연 熾盛할 것이외다. 그러나 夫子之道는 해가 中天

에 뜬 것 같으니 그 따위 妖邪之氣가 太淸을 敢히 드립힐 것입니까?』고 壯談하였었다. 邪學은 洋夷들이 받드는 耶蘇敎를 말함시오. 實際에 있어서는 歐米學術全體를 가르침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一國의 大臣들이 國家存亡의 때에 앉아 내나라는 어떻게 저 나라는 어떻게 世界大勢는 어떻다는 것을 明白히 認識키는커녕 어둔 밤에 마루 창을 더듬으며 무엇이 있을 법 없을 법 까닭 없이 헤매는 어설픈 생원님들과 같은 것이었다.

이 보담 앞서 高宗三年 丙寅八月에 北京을 갔다온 正使柳厚祚는 重熙堂에서 高宗께 뵈우며 北京城에 洋夷가 매우 거세게 橫行하는 형편을 알외고 『洋夷가 비록 狡醜하나 邪不勝正이니 무어 오래 가겠습니까』하고 意見을 불렸었다. 이것도 世間情勢에는 그 저어두면서 덮어놓고 邪不勝正이라고 어리무리한 壯談을 한 것이 分明하다. 柳右相이 홀로 어둔 것이 아니었으니 高宗十年癸酉八月에 역시 北京을 갔다온 正使李根弼과 副使韓啓源은 이렇게 말했다.

高宗 『洋夷의 北京있는者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그냥 避하드라니 그래 그러튼가?』

根弼 『顯然히 回避하는것이 아니오라 거리에서 맞나면 못 본체하며 相干을 안하러드니 아마 忌憚하는 마음이 있어 그렇겠지요』

啓源 『洋醜가 우리를 避하는 것은 우리가 洋醜를 避함과 같은 것입니다』고 모다 베스속유한 奏達을 임검께 하였던 것이다. 避하기는 무엇을 避해! 高宗十年은 西紀一八七四年으로 鴉片戰爭은 姑捨하고 英佛聯合軍이 北京天津을 蹂躪한지 이미 十數年에 露國은 伊犁를 占領하고 日本은 臺灣을 征伐하고하던 한참 판이라. 그들 西洋人은 朝鮮에 對한 興味가 그리 켕기지 않으므로 소담 보듯 路上에서 놓고 지나가든 것이오. 오죽 朝鮮에서는 丙寅 辛未 두 번洋亂에 不幸한 僥幸으로 조금 왔든 佛, 米東洋艦隊를 물리치고 턱없는 自負心이 돌이어 寒心한 우습을 有心人에게 자어내든 來歷을 말함이다.

辛未米亂보담도 丙寅佛亂보담도 앞서기 數三年에 洪鳳周는 執政大院王을 달랜 일이 있었으니 이는 어름 없는 獨斷도 아니오. 程朱學에 골병들은 例에 依한 鸚鵡노리도 아니었었다. 大院君이 執政하던 때는 淸의 勢力이 오히려 朝鮮을 늘르고 東海의 새로이(興)는 氣勢는 將來가 매우 걱정 되던 때이라. 洪鳳周는 大院王을 찾아 曰 『公이 今日天下大勢에 西洋諸國이 中原에 雄視함을 아는가?』 大院王이 깜짝 놀라 曰 『西洋國을 어디있누?』 洪鳳周는 그제야 歐米諸國의 形勢를 연방이야기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지금 우리나라가 반듯이 한구석에서 편하게 지날 수 없을 것이오니 만일 저 나라(西洋諸國)들과 通商을 하게하고 더불어 交結하여 서로 貿遷을 하고 그 技術을 배우면

그것은 곧 富國移民의 策입니다!』大院君이 洪을 끌고 政室에 들어가 하는 말이 『西洋을 通하려하되 海路가 絶遠하고 東西가 懸隔하니 어찌면 좋소? 洪이 曰『公이 그러케 만하면 中興의 偉業이 단박에 될 것이오. 朝鮮의 生民이 福이 있을 것입니다. 生과 友人南鍾三과 李身達는 모두 同志의 士이라 願컨 대는 國家를 위하야 西國이 紹介하렵니다. 드른 則 日本長崎港은 西商이 輻 湊하는데라고 하니 만일 明公의 分부를 얻었으면 釜山으로 해서 長崎있는 西商에게 通信할 것이오. 그들을 불러오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大院王이 고개를 끄덕이어 좋다고 하고 『이것은 大事이라 마구 할 바 못되니 내가 熟思하기를 기대 려서 할일이며 君은 아예 말을 말고 내가 決定한 後 君을 찾을 것이니 집에서 가만히 기대리라』大院王을 첫마디에 척 알아듣는 聰明 特達한 大政治家의 감량이 있어보였고 洪鳳周는 나의誠心を 헛되이 슬어지 지 안는다고 믿어 깃뻐날뛰며 간 것이였었다. 그러나 일은 이와 아주 판판으 로 벌어지고 衰亡의 길을 밟아 가는 朝鮮은 그트아 오늘 날의 局面을 나타 내고만 것이다.

洪鳳周가 돌아간 後 大院王은 두 어깨에 떠메고 있는 一國一民族의 安危 의 때문에 開國進取의 中興의 大事業을 벌이려고 애써우고 궁니허고하며 단 잠을 못 이루는 대신 슬적 自己가 길르는 鷄鳴狗吠의 輩로 洪鳳周의 뒤를 밟고 그 秘密을 機察케하야 畢竟 洪鳳周의 집을 에워싸고 一網打盡하는 警察政治의 어비 手段을 부리기로 되었다. 그리 하야 洪鳳周 李身達은 洪의 집 에 숨었던 佛蘭西人 宣教師베루느 (張敬一)와 함께 西小門밖에서 車裂戮屍를 수레에 찌저 죽여 도막치고 脚을떼는 刑을 當하고 그의 妻子는 모두 잡혀죽 고 나이어려 못 죽인 者들은 獄에 가두어 길렀다가 나차기를 기대려 죽이고 南鍾三은 벼슬이 承旨오. 역시 學識이 있는 人物이라. 그와 그 아버지 八十四歲의 南尙教 (號 雨村 農學者 有名함)와는 모두 잡혀 處斬하고 그의 族系 는 班閥의 列에서 돌려 내고 南鍾三의 夫人 李氏는 昌寧縣에 九歲女兒는 山 淸縣에, 七歲女兒는 靈山縣에, 돌려 주어 婢子로 박고 四歲兒子는 宜寧縣에 奴子로 하기로 하였더니 結局 李氏夫人과 二女一子는 昌寧縣에서 奴婢로 박 게 되었다. 南鍾三은 일즉 露國의 北方强壓을 저허 하야 大院王께 靈佛兩國 과 修好通商하면 露國을 牽制할 수 있을 것을 獻策하였든터이라 또한 憂國 慨世하는 先驅者이었거늘 大院王은 어찌 이를 罪逆으로 몰고 當時 政府의 要路와 諫院憲府의 사람들은 蛇蝎같이 미워하며 仇讐로써 해내었는가? 그 固陋와 偏見과 無慈悲는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일이다. 大院王은 一代의 豪雄 이로 剛果 英邁한 質로 國太政의 尊을 차지하야 執勢하는 첫 서슬에 閥族을 打破하야 人才登庸의 길을 열고 貪官劣班의 人民政暴를 嚴禁하야 그들의 모

짜리오. 巢窟이던 書院을 撤廢케하고 財政을 改革하며 軍制를 革新하여 國難을 匡救하려하며 하였으니 만일 洪鳳周 南鍾三 等の 獻策을 들이어 歐米列國과 修好通商하고 그 技術을 배우며 그 政法을 본뎠던들 비록 數百年衰勢에 疲弊가 겨운(極)朝鮮이었드라도 반듯이 所謂 更生의 길을 되돌아서 大院王은 中興의 偉業을 짜장일우였을 것이오. 朝鮮民은 복이 있었겠는데 大院王의 생각은 이에갈번도 아니하고 마치 一警務行政官의 頭腦로 밖에 움죽이지 아니하였었다. 그러나 朱子學의 外에 다시 學問도 思想도 見議도 없고 中國의 外에 다시 世界도 文明도 人類의 歷史도 없는 것으로 알어 職方外紀일세 海國圖誌일세가 간신히 그 冊床위의 聞見을 보태는데 지내지 못하였고 黨爭이면 國家도 民族도 다 내노양도 아깝지 안케 생각하던 人間的 血性을 떠나서의 人物들로 둘러싸히어있는 그때의 朝鮮政界이라. 大院王이 固陋치아니할 수없고 그에게는 外國의 人與物은 모두 猜疑요. 畏懼요. 憎惡이요. 또 侮蔑일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가 洪鳳周의 獻策을 들을 때에 一代의 政治家로 局面變換 歷史回轉의 大心法을 가지기는 커녕 邪學排擊 醜類網打의 악착스러운 奇警한 眼識과 手段밖에는 머리에 떠오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大院王의 當年은 지금부터 七十年前의 일이라. 七十年前에도 이러하였으니 그보담 더먼 저에는 가위 아득한 옛날이라 의례로 이보담 더 기막힌 일이있었을 것이다. 그러타면 이토록 악착스럽고 어둡고 어림없는 판에 洪鳳周 南鍾三 李身達等은 어찌하여 남달은 見識이있고 海外事情을 짐작하며 進取救國의 熱과 誠이 있었든가? 그 理由가 없지 않을 일이다.

當時 義禁府供狀에 나타난 것을 依하더라도 洪鳳周 父粹榮 父之父樂敏이니 洪樂敏의 正祖때의 사람으로 茶山 丁若鏞 貞軒 李家煥 밑 李承薰等 世界의 事情을 짐작하고 西歐의 文物과 思想을 즐겨 하여 一代의 名流 碩學으로 千古의 先驅者가 되던 諸人物과 交遊하여 그 聲價가 낮지 않은 사람이오. 同母는 丁召史 母之父는 若鉉이니 丁若鉉은 卽 茶山丁先生의 伯兄으로 二弟若鍾 三弟若銓 季弟若鏞을두어 上記兩李氏의 『兩李』와 한 가지 三丁의 名稱을 받은 터로 茶山先生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茲山 丁若銓도 見識學問이 一世에 높아 그가 黑山島에 流配한지 數十年에 調查研究한 結果를 編述한 『茲山魚譜』란 것이 現代에 있어서도 朝鮮水産學界의 無二한 珍籍으로 重用됨을보아 알 것이오. 洪鳳周는 그 本祖外祖가 아울러 新進起凡의 名士이었으니 그 大志高見이 由來가있고 李身達는 前記 李承薰의 아들이니 李承薰은 李家煥의 甥姪이오. 正祖朝에 그 父親 李東郁의 使行을 딸어 燕京에 往復할때 燕京에있는 西洋宣教師를 만나 西國事情과 世界情勢도 듣고 曆象에 關한 말도 못하고 幾何原本 數理精蘊 視遠鏡 地平表 其他儀器도 얻어왔으며 問題되는 天

主實義 等の 耶蘇敎書籍의 寄贈을 맞나 그것이 邪學妖書로 指斥되고 이로써 黨人網打의 좋은 口實을 주게 된 것이며 身達의 母 丁召史오. 母의 父는 載遠이니 載遠은 丁茶山의 아버니오. 身達는 茶山의 達詣이라. 南鍾三의 아버지인 南尙敎가 또한 西學에 通하여 當時 農學의 造詣가 깊었던 것에서처럼 洪鳳周 李身達 南鍾三은 세사람이 모두 그 學問思想 및 意圖의 由來가 깊었고 結局은 그들의 進步主義的이오. 國家民生을 생각하던 誠念이란 것이 當時 儉詐한 무리에게 猜疑와 憎惡의 거리로 되어 大體 모다 例外없이 祖父孫三代와 一門老幼가 滅宗絶族의 刑禍를 당하였을 뿐아니라 『淫朋醜類, 凶賊邪黨, 無父無君, 冠裳而禽獸, 究厥罪犯, 萬戮猶輕』 하는 最大級의 惡名을 씌우게 되어 善類를 戕害하는 一聯의 徒輩로 하여금 도리혀 그 遺臭萬年의 行爲로 合理化하게 장식하게 한 것이다. 茶山 丁若鏞은 英宗三十八年 壬午六月十六日으로써 廣州郡斗尺里에서 났으니 어려서 穎悟하고 語言이 出衆하여 長老를 놀랜 것은 말할 것이 없고 자란 後에 星湖李瀼의 遺書를 보아 크게 感動되었음으로 그 學하는바 이미 凡人的 追從할바아니었으며 貞軒李家煥은 李星湖의 從孫이오. 聰明穎悟는 丁茶山에 지남이있었고 또 年齡閱歷이 茶山보담 先進이라. 李承薰이 역시 一時名流異材로써 貞軒李氏의 甥姪이오. 丁茶山의 姊夫이라. 이러한 關係는 三人으로 風期가 親하고 情誼가 通하고 그 趣尙이 한가지로 되었으니 奇하다 할 것이며 茶山은 李承薰等 燕京往來의 便을 따어 燕京의 媒介地로 삼는 西洋學問과 學風輸入의 先驅者의 하나이오. 또 그 集大成的 偉業을 이룬분이다. 이것은 當時 鬱勃하는 宗國意識에서 이미 社會의 桎梏이오. 思想을 재갈먹이는 朱子學에 對하여 厭忌의 情이나고 斬新淵深하여 新生面을 열게되는 西洋學問에對한 必然 또 當爲의 일이오. 兩李三丁을 아울러 自然一轍로 向하게한 바이라. 正祖二十一年 儉人奸黨들의 隔擠함에 對하여 先生이 그 自引한 疏中에 『原有一種風氣, 有能說天文曆象之家, 農政水利之器測量推驗之法者, 流俗相傳, 指爲該洽, 臣方幼眇, 竊獨慕此!』라고 그實學追求와 富國利己의道를 다하려던 意圖의一斑을 表出하였었다. 이것이 先生의 自嗅의 말이지만 그 學問인즉 當代士類必須의 科目인 哲學倫理等 即 經學에서 斷然 그 該博明哲의 斷案을 가진 것은 當然의 일이고 그의 가장 光彩나고 價値있어 朝鮮學界의 至寶이오. 民族文化의 자랑인 것은 現代論客들이 朝鮮學이라고하는 諸學이다. 그 代表的인 者로서는 經世遺表 牧民心書 欽欽新書 等은 政治, 經濟, 財政, 租稅, 刑政, 兵馬, 郡縣 城郭, 畜産, 鑛物, 交隣, 敎化, 行政, 臨民 治獄, 裁判等 爲政百般에 빠쳐오되 朝鮮古今의 歷史民度에 對應하여 具體實踐의 理論과 實際를 歷歷指掌한것이 그 斷然拔群하는 內容의 特色이오. 中國의 唐虞三代로부터 唐宋元明清의 歷代事實을 그의

科學者者인 明晰堅實함과 爲政家인 日常實踐의 點에서 現代의 專門家로서도 驚喜贊嘆을 애끼지 안케하는 바이오. 疆域考 大東水經에서 三韓 三國 白山 涓水 四郡 五伽倻等等라. 東邦江河의 誌를 보이어서 或迷蒙을 깨치고 或掌中에 보이듯 하였으며 雅言覺非는 語詞의 用例와 物名의 正解로써 言語整理와 民魂昂揭에 좋은 著述이오. 文獻備考正語에서 그 考證의 該博이 學界에 裨益하고 樂書孤存에서 樂學樂制에 對한 그의 抱負를 보이며 麻科會通과 醫零에서 그 醫學에 關한 豊富한 造詣와 衛生 保健에 關한 經綸을 發露하였으며 種痘의 術은 薙너와 아울러 높게 되었고 風水集議에서는 朝鮮人의 큰 關心도되고 巨大한 弊害를 일우는 地相學과 禍福說에 對한 明爽淵深한 論辯을 보이었으며 그의 策 議, 記, 論, 詩 書翰 講學記 紀行其他 禮論諸說에 자못 超人的인 經綸見識을 보이었으니 그는 純然한 學者로도 朝鮮學의 代表的인 偉大한 人物이다. 그러나 그는 一個의 巨大한 純學究만이 아니니 그가 臨民治政하는 (谷山府使) 職에 當하여야는 戶籍을 고치고 教育을 넓히고 稅制를 바로잡고 盜竊을 禁하여 百姓은 安堵하여지고 官庫에는 餘財가 있었으며 刑曹參議로는 重難한 刑獄을 判決하되 是非가 밝어지고 曲直이 쪼개내듯되며 煩務가 남음이 없고 人民에게는 冤枉이 없었으며 正祖께서 水原城을 쌓을새 喪中에 있는 丁茶山을 불렀드니 그의 物理學과 機械의 理에 貫通함은 引重起重의 法에서 一舉四萬緡을 節約하는 奇効가 나타났었다. 그는 爲政家뿐아니오. 軍略軍政에 있어 將材가 있는지라 正祖께서는 그를 將相偉材로 그에 大用코저하였든 것이다. 그럴스록 그를 猜忌排擠하는 一代의 憚人妖輩들은 더욱 邪學妖敎로 그를 몰고 大逆不道로 그 同輩를 構陷하여 網打屠戮의 慘禍가 史上에 거둡하고 國運은 드디어 衰勢를 救하지 못하여 畢竟 奈何할수 없음에 맞인 것이다. 先生이 한번 넘어진 後 西學의 書を 불질르고 歐米의 儀器圖表를 禁遏하며 世界의 聲息을 막고 가리어 朝鮮에 들리고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丙寅辛未의 亂에는 形勢 이미 그 痼疾을 고치기 힘들 때이어늘 오히려 冒頭에서와 같은 珍奇淺陋한 問答을 堂堂廟堂의 우에서 주고 받게 되었으니 實로 悲痛한 苦笑를 禁치 못할 바이다.

丁茶山과 李貞軒과 李承薰은 一百三四十十年前에 있어서의 朝鮮의 大先覺이오. 大先驅者이라 그때에 있어 一舉의 改新進取는 위낙 바랄 수도 없는 바이지만 漸進의 功이 그 奄奄垂亡의 局을 한거름식 挽回함만 있었드라도 우리들의 朝鮮은 훨씬 그 面目이 달랐을 것이오. 大院王의 當年 洪鳳周 南鍾三 李身達等의 抱負가 採用되었드라도 또 그 次善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丁茶山の 代에 茶山과 玆 上記數氏만이 그 發心한바 아니니 先生이 그 萬死一生의 慘澹한 禍厄에서 十八年流配의 슬픈 길을 떠나던 純祖元年 辛酉春正月

에 朝鮮最初の 潛入한 宣敎로 그 血淚의 記錄을 남겨둔 中國江蘇省人 周文謨와의 關聯事實에서 볼 수 있다.

同年夏四月丙寅에 邪學罪人推鞠案에 『金建淳은 本以名官顯族으로 世襲富厚하고 年少聰明하며 務博尙奇하여 多畜浮輕誑誕之客하며 好看方術不經之書』라고 年少聰明을 許하고 『好看方術不經之書』라는 가장 寬大한 論告를 한 것은 當時政權을 잡은 者 그 連姻持戚을 庇護하는 裡面을 알려니와 金建淳은 淸陰文正公金尙憲의 玄孫으로 公憤만이 아니오. 丙子의 役에 金尙憲이 瀋陽에가있기 五年에 가주어 辛酸을 격것으니 家門의 怨恨으로도 그 情感을 衝擊함이 있었을 것이오. 當時의 血性이있고 才識이 높은 이는 모다 西國의 文物을 欽慕하고 進取救世의 念願과 밋 그 精進이 있었든 것이다. 要까지 丙子까지 兩役의 後에 朝鮮의 民衆은 激昂하고 衝動되어 모두 일어나 憧憬의 新世界를 찾으려 할새 그 下愚인 者들은 『海中有島, 兵馬強壯』의 奇想天外 같은 든든한 救援의 힘을 허풍으로 바라고 或은 『海中眞人, 遁甲之術』 같은 夢幻病的인 荒誕說을 옴기기로 하며 中으로 『年少聰明, 務博尙奇』하는 金建淳流의 人物들은 『海中空島, 養兵繕甲』하는 空想的인 計劃에도 저 혼저 熱中하여 『多畜浮輕之客』으로 그 同類를 길르고 『好看不經之書』라고 실증이 난 程朱學說의 外에 西國의 學說과 思想을 攝取하기에 汲汲도 하였었고 上智의 사람으로 茶山과 貞軒과 李承薰과 外에 李學逵 權日身 洪樂敏 또는 順庵安鼎福같은 人物들은 或은 廟堂에 앉아 그 歷史의 機軸을 돌리기를 企圖도 하고 失意하며 杜門廢跡하여 스스로 名利를 辭하고 研鑽과 著作으로 天下後世를 啓牖하려함이 었든 것이다. 그러나 權柄을 잡어 異派의 穢骨을 根絶하고 民衆을 귀 먹히고 눈 멀리어 그 擡頭의 길을 미리 막어 子孫萬年の 榮幸을 누리려는 徒輩가 般根錯節로써 社會의 樞機를 잡어 正祖와 같이 茶山一流의 志와 材와 學을 滿幅信任하는 분으로도 畢竟 奈何치 못하였고 正祖께서 一旦晏駕한 後 그 屍身이 밋어 식지 않은 동안 一聯의 蠹國害民하는 徒가 一代의 名流先覺을 몰아 滅宗絶族의 前代未聞하던 慘禍에 넘어 지게 하였으니 有心人의 恨淚가 옛 임으로 무틸 수 없는 바이다. 茶山 貞軒 李承薰 밋 其他의 諸氏網打의 厄을 본지 十年에 洪景來가 純祖十一年辛未로써 關西에 舉兵하여 淸北一境이 血火속에 흔들렸고 이어서 滔滔한 形勢 日比하는 비탈을 굴러나렸든 것이다. 여기에서 現代의 識者와 先驅者와 青年의 學徒들은 朝鮮社會의 病들은 由來를 돌아보고 現代朝鮮에 쫓겨다 하지 않은 舊社會의 殘滓를 그 自身들의 血管에서 부터 清算揭棄하고 스스로 至誠報世의 久遠한 奉仕의 길을 나아가야 할 것이다. 嗚呼茶山! 그는 實로 武의 李忠武公과 謙稱할 文의 第一人者이오. 그 一身의 遭際에서 朝鮮民의 運命을 反映하였다고

하겠단다.